



명절 대목 수요로 계란 강보합세 유지

◆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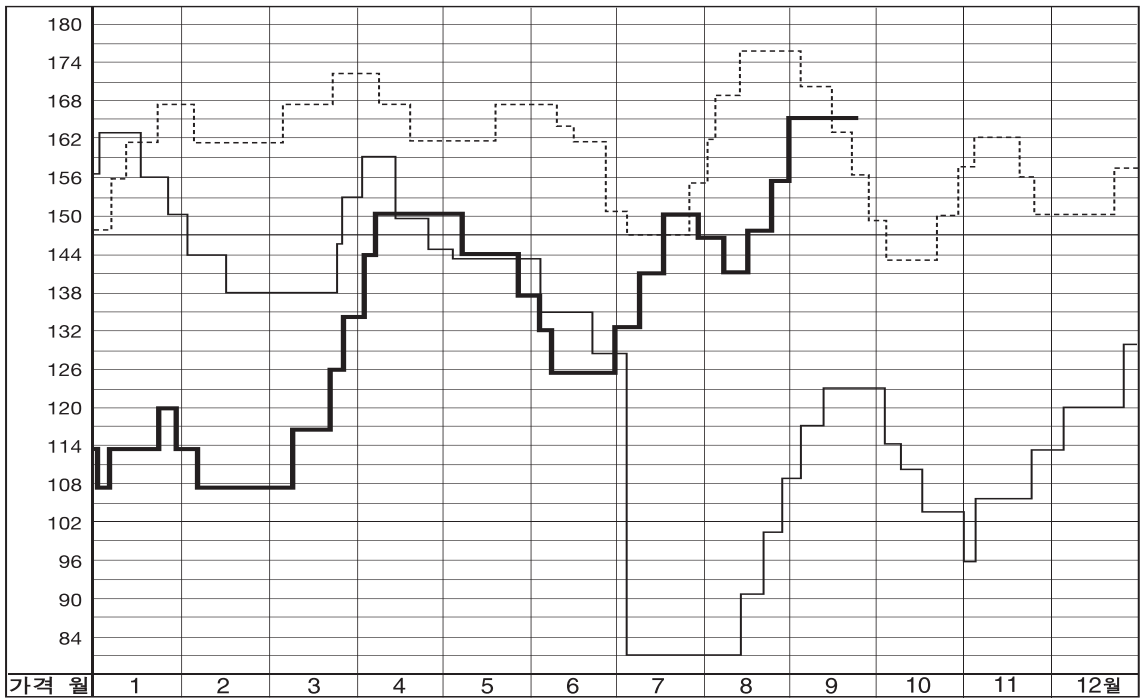
산지나가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구매음직임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8월 중순 이후부터 노계 출하작업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계란생산력은 감소하고 있다. 추가 난기인상 기대로 추석 대목을 마치고 난가하락 시 노계군이 일시에 쏟아질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혹서기 고온스트레스 등의 영향으로 노계군의 산란율이 크게 떨어지고 후보 계군의 산란가담 주령이 가까워지면서 농가에서 출하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통계청의 가축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산란계 사육수수는 전년과 비슷한 6,193만수이며 6개월이상 산란계 사육수수는 전년보다 3.6% 증가한 4,832만마리로 조사되었으며, 9월 현재 산란계 사육수수는 신계군 증가와 종계노계 도태 등으로 산란계 사육수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학교급식과 대형급식업체, 난가공업체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일반가정에서도 과채류의 가격인상으로 계란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계란은 농장에 재고가 쌓일 틈도 없이 바로바로 소진되고 있다. 왕·특·대란은 물량은 물량부족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신계군이 주로 생산하는 중란 이하 계란은 공급량이 여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분석

지난 8월 산란종계 입식마리수는 53,000수로 전월대비 33.3%감소하였으며, 8월까지의 누계입식 마리수는 419,300수로 전년 동기간 누계대비 20.5%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산란병아리 분양 마리수는 3,205천수로 전월대비 7.2%감소, 전년 동월대비 12.4%증가하였다. 7월 육추사로 생산량은 29,302톤으로 전월대비 0.4%증가, 전년 동월대비 2.5%증가하였다. 한편 7월 산란노계 도태수는 1,776천수로 전월대비 46.4%감소하고 전년동월 대비 43.3%감소해 지난해와 비교하면 난기인상 기대 심리로 인하여 현저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2/4분기 가축사육통계에 따르면 산란계 사육마리수는 6,193만수로 전 분기대비 42.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이상 사육계군은 4,832만수로 전년 동분기대비 3.6%증가하였으며, 3~6개월 병아리 공급마리수는 414만수로 전 동분기대비 39.2%감소, 3개월미만 마리수는 947만수로 전 분기대비 11.4%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9월) 6개월령 이상 산란계 마릿수는 전년 대비 1.4% 감소한 4,614만 마리 전망된다.

◆ 전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계란 소비는 자연스럽게 증가하면서 난가에 인상에 대한 농가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1월달 병아리 입란 중단 후 병아리 입식량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지난해에 비해 상반기 계란 생산량 감소로 비수기인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난가는 강세를 형성하였다. 명절이후 소비감소는 계란도 피해가기 어렵겠다. 명절대목이 지나고 나면 가정에서는 명절동안 준비한 음식을 소비하고 이 기간 동안은 외식이나 식재료 구입이 급감하기 때문이다. 난가는 약세권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노계 출하량 증가와 이로 인한 계란 생산도 감소하면서 난가는 완만한 하락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계란은 자체 소비의존도가 높아 약간의 계란 생산량 및 소비량 등의 변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연초 병아리 입추 감소로 난가가 예상보다 빠른 반등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 병아리 입식수수가 월 평균 300만수 이상 꾸준히 들어간 만큼 다시 장기간의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커 병아리 입식자제와 조기도태를 통한 생산조절에 적극 동참하여야 하겠다.



※ 2012.7.6 계란가격 현실화 차원 D/C폭 47원 줄임 **특란기준 계란가격(개당)** 2011-- 2012- 2013 -

▶ 병아리·사료·계란생산(잠재력) 및 가격

월	연도	총 계 입식수 (수수)	실용계 생산수 (천수)	사료(천톤)		산란 실용계 (원)	서울 특란가격 (10개원)
				육추	산란		
1	2010	34,000	2,570	25.3	169.4	1,100	1,224
	2011	11,000	2,380	27.1	181.0	1,200	1,595
	2012	20,000	3,313	29.8	175.8	1,338	1,589
	2013	63,000	2,139	27.0	181.9	1,075	1,079
2	2010	33,896	2,338	23.9	156.4	1,150	1,246
	2011	0	1,659	22.5	154.6	1,336	1,629
	2012	0	3,127	29.6	163.3	1,300	1,417
	2013	74,880	633	25.6	155.4	1,075	1,088
3	2010	71,396	3,299	25.7	174.8	1,150	1,235
	2011	65,600	2,317	24.1	173.7	1,450	1,676
	2012	10,600	3,296	31.2	177.4	1,272	1,420
	2013	18,000	3,819	22.7	166.7	1,066	1,145
4	2010	56,000	3,178	28.1	169.4	1,122	1,176
	2011	61,500	2,196	22.0	167.9	1,438	1,670
	2012	137,520	3,245	29.2	171.0	1,239	1,528
	2013	31,000	3,691	22.6	178.8	1,050	1,480
5	2010	52,000	2,606	27.8	165.7	956	1,179
	2011	128,092	2,959	23.9	171.9	1,450	1,625
	2012	50,000	3,686	32.0	172.3	1,200	1,405
	2013	50,000	3,430	26.3	176.8	1,050	1,451
6	2010	0	2,419	29.2	154.8	900	1,152
	2011	85,300	2,958	25.9	163.0	1,450	1,614
	2012	0	3,281	30.1	163.6	1,175	1,332
	2013	49,920	2,832	29.2	151.0	1,050	1,282

※2009년 11, 12월 실용계 생산수 변경

7	2010	29,700	3,202	25.9	156.9	928	1,200
	2011	0	2,871	25.3	149.1	1,450	1,495
	2012	0	2,700	28.6	158.5	1,150	886
	2013	79,500	3,453	29.3	166.9	1,050	1,432
8	2010	42,000	2,368	23.3	149.9	950	1,313
	2011	49,080	2,644	28.5	170.0	1,450	1,706
	2012	84,000	2,850	27.3	159.2	1,028	911
	2013	53,000	3,205			1,050	1,478
9	2010	45,000	2,600	24.3	162.4	1,000	1,558
	2011	83,200	2,516	28.5	162.9	1,450	1,625
	2012	52,000	2,347	24.9	167.5	1,050	1,195
	2013						
10	2010	80,800	2,822	25.8	165.5	1,050	1,501
	2011	43,500	2,955	28.1	166.2	1,450	1,454
	2012	94,000	3,105	26.2	170.8	1,080	1,095
	2013						
11	2010	43,000	3,134	26.9	170.7	1,133	1,458
	2011	96,692	3,086	27.8	169.3	1,450	1,580
	2012	0	3,526	26.7	168.8	1,100	1,095
	2013						
12	2010	47,600	2,962	28.7	184.3	1,172	1,504
	2011	41,600	3,697	30.9	180.8	1,439	1,515
	2012	0	3,721	27.3	181.5	1,100	1,713
	2013						
계	2010	538,692	32,761	316.4	1,980.8	1,052	1,308
	2011	665,564	32,238	314.5	2,010.0	1,418	1,599
	2012	493,880	38,198	343.1	2,029.7	1,169	1,299
	2013						